

‘안보국회’ 첫날

# 與 “지소미아 파기” 野 “핵무장 필요”

### 일본 경제 보복 · 중·러 영공침범 · 북한 미사일 쟁점 원유철 “美태도, 한미동맹 훼손...한국형 핵무장 제안” 심재권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지소미아 파기해야”

여야간 힘겨운 협상 끝에 열린 ‘안보국회’가 열린 가운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미사일 도발,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해법은 극과 극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핵무장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

라고 한다”며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核) 위협에 맞서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우리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NAO)처럼 한·미가 핵공유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독도 부근

에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영공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했는데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리지 않았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외국의 항공기, 특히 우리가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온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외교부 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허니머니한 소리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일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분은 국민에 대해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실용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복은 우리가 방치를 하거나 아예 포기할 해 버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에 기간만료가 되는데 연장할 것인지, 맞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갖고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도 우리가 보복조치를 넘어서 폼페이오 측이 다른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논리는 일본이 국가정보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장관님이 말한 것은 자기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 북한의 최근 태도 등 이렇게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면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진다”며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답변에 나서는 이런 일보다는 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더 확고한 입장을 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로 우리가 카드로 쓴다는가 무슨 흥정대상으로 한 단어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고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제한한 것은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포하고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대표단 일본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청원 방일의원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 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이인영 원내대표, 추경 처리 합의에 “가뭄 끝 단비...늦은 만큼 심사 진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많은 늦은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추경 심사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 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다. 목마름을 해소할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역대도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국민께 한없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해 재난과 미세먼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을 위한 추경을 기다려온 많은 국민께 납득할 만

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두 달 안에 70%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000건에 달하고 처리율은 29.7%에 불과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며 “20대 국회와 역대 최악이라는 질책에서 벗어나려면 방안을 찾고 법안 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통일부 “대북 쌀 지원, 北 공식 ‘거부’ 입장 확인 주력”

### ‘한미훈련’ 이유 南 쌀 거부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측이 지원하는 쌀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

와 동포애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의 경우 우선 북측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는 이달 중

순계 WFP 측에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남측에서 지원하는 쌀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WFP는 이러한 상황을 통일부 측과 공유하며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공식적인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북한과 WFP의 실무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장병완 “8월 말까지 무휴국회 선언해야”

### “도대체 20대 국회가 무슨 일을 했나” 격분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가 네 달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어렵게 재개된 것에 대해 교섭단체 3당의 책임을 묻고 이달 말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무휴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들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일부분만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것

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해있다. 도대체 20대 국회가 민생 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은 8월1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8월 말일까지 무휴 국회를 선언해야 한다”며 “평화당은 주말도 쉬고, 휴가 없는, 8월을 무휴 국회로 보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를 통해 늦게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3당과 국회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